

3국 협력 VISION 2020

전 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제3차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2010년 5월 29일, 한국 제주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과거 10년간 3국 협력의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및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온전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향후 인적 교류 및 재화, 용역, 자본의 이동 증진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제반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 3국 협력 발전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에 따라, 선린 우호, 상호 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3국 협력을 굳건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2020년까지 3국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고,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보다 내실화되며, 3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인 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3국 협력이 3국의 공동 이익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여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본 문

I.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

1-1. 우리는 3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강화하고, 국민들간의 우호친선 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기타 각료급회의 및 고위급회의와 같은 각종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3국간 교류를 심화·확대함으로써, 3국간 공고한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을 구현해 나간다.

1-2. 우리는 3국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3국 협력 사무국을 2011년 대한민국에 설립할 것이다. 동 사무국은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기타 각료급 및 고위급회의 등 3국간 협의체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 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1-3. 우리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공동대처하고 동북아시아의 재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재난정보, 정책 및 기술 공유에 있어 3국 재난관리기관장 회의를 포함한 기존 제도와 기관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4. 우리는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3국간 국방 및 군사분야에서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국방대화' 개설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국제 범죄에 공동대응하고 3국간 치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치안당국간 긴밀한 협력체를 구축할 것이다.

1-6. 우리는 3국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행정·경제·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3국 지방정부간 교류 진전을 구현해 나간다.

II.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2-1. 우리는 2010년 5월 출범한 한·일·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3국 FTA 협상의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에 대한 3국간의 공통이해를 추구할 것이다. 나아가 한·일·중 3국간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3국간 경제통합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과 통합에 필수적인 3국간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늘려 나가기 위해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고, 무역 원활화 노력을 통해 3국의 무역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2-3. 우리는 3국이 공조하여 역내 효율적인 운송 및 물류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활한 물류 체제를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운송 및 물류 네트워크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중 물류장관회의 및 양자간 정책 대화를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2-4. 우리는 3국 및 역내 무역원활화와 공급망 보안에 기여할 세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 채택된 '3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 계획'의 이행을 통해 세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5. 우리는 3국 기업의 역내 투자를 적극 권장한다는 관점에서 한·일·중 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역내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법적·제도적·절차적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역내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6.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3국 금융당국간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며,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3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성공적 출범과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의 효과성 제고 등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G20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

2-7.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하며 자유화된 다자무역체제가 한·일·중 3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도 반대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상 진전 사항을 기초로 조속하고, 야심차고, 균형잡힌 DDA 협상의 타결을 도모하고, 도하라운드 이후 다자무역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8. 우리는 과학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3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통의 지역 및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3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아시아 3국 미래예측 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실제 상황에 비추어 투자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3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방식에 따라 공통 관심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기금프로그램 마련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2-9. 우리는 표준협력이 불필요한 기술장벽 제거를 통하여 무역을 촉진시키는 주요 수단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통표준연구, 국제표준제안,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갈 것이다.

2-10. 우리는 산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자원, ICT, 하이테크, 문화 산업, 운송, 보건, 농업, 어업, 관광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정책 공조에 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2-11. 우리는 3국간 경제협력 공조가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기 조치들을 통해 우리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다. 더불어 3국이 역내 및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특히 G20와 APEC을 포함한 다자 포럼의 장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된 세계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책 틀(frameworks)에 대한 협력적이고 협의적인 상호평가 과정을 전개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III.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3-1. 우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 및 제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5)의 결과를 환영하고 코펜하겐 합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COP15/CMP5의 긍정적 결과에 기초하여 UN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post-2012 국제협력 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COP16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2. 우리는 환경보호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1) 환경 교육, 환경인식 및 대중의 참여, 2) 기후변화, 3) 생물다양성 보존, 4) 황사, 5) 오염관리, 6) 환경 친화적 사회/3R 운동(절약, 재사용, 재활용)/자원 재활용을 잘 하는 사회, 7)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8)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9) 동북아 환경거버넌스, 10) 2010년 5월 3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 친화적인 산업과 기술 등, 이러한 10대 우선 환경협력 분야에 대한 3국 공동 행동계획을 3국의 환경장관들이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적, 또는 국제적 구상에 걸맞는 구체적인 협력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3-3. 우리는 2010년 10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될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2012년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될 세계자연보존총회를 지지할 것이다.

3-4. 우리는 해양쓰레기 배출 예방을 위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틀 내에서 해양쓰레기 지역 실천계획(RAP MALI)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역내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배출 감축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5.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 황사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커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황사 모니터링 방법론, 예방 기술, 대응능력 배양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3-6. 우리는 유해 폐기물, 특히 전자폐기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입법 및 집행 능력 배양에 있어서의 협력은 물론, 불법적인 초국경적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및 정보 교환과 같은 전자폐기물 관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3-7. 우리는 한·일·중 순환경제 모델기지 구축을 모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IV. 인적 · 문화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4-1. 우리는 3국간 활발한 인적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3국간 우호를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3국 국민들 간의 신뢰와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3국간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마다 열리는 한·일·중 문화 산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유네스코 틀 내에서 무형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4-3. 우리는 우호 관계 및 상호이해 증진,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국간 현재의 인적 왕래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4. 우리는 학점 인정제도 및 공동 학위과정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일·중 대학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확인한다. 또한 한·일·중 3국 '대학 교육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quality assurance agencies)'간 협력을 증진하고, 대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이며, 우수한 학생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패키지를 검토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3국간 교육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는 차원에서 장관회의가 개설되도록 여타 회의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또한 3국간 교사 교류도 활성화할 것이다.

4-5. 우리는 3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간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3국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교류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4-6. 우리는 운동선수, 체육 관련 각종 단체 및 기관간 교류를 장려하고, 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스포츠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3국간 스포츠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VISION 2020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4-7. 우리는 3국간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들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3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V.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 노력

5-1.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 안보,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2. 우리는 테러리즘이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테러 근절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 분야의 한·일·중 3국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5-3. 우리는 마약관련 범죄를 포함한 마약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퇴치할 필요를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5-4. 우리는 각국의 식품 안전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지된 문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각국의 관계 당국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5. 우리는 전염병 대응에 대한 3국 협력분야를 가능한 새로운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역내 전염병 대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5-6. 우리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이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국의 질병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등 관련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다.

5-7. 우리는 세계 빈곤과 기아가 증가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3국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5-8.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 증진을 위하여 ASEAN+3, EAS, ARF, APEC 등 다양한 지역협력체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동아시아 협력의 추동자로서의 ASEAN의 역할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5-9. 우리는 세계적 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2005년 유엔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엔의 권위,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 개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데 의견을 같이했다.

5-10. 우리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을 돕기 위한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한·일·중 對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3국간 윤번제로 개최할 것이다. /끝/